

<서평>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Alexander Achilles Fisch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김정훈\*

## 1. 들어가는 말

본문비평(Textkritik; textual criticism)은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데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기초 단계다. 본서의 저자인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Alexander Achilles Fischer)는 “본문비평은 주석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며, 뒷문은 없다”고 말하며 이 점을 두 번이나 강조한다.<sup>1)</sup> 이 말대로 구약성경 본문을 주석하려는 이에게 본문비평은 필수적인 기초 단계다. 이것은 신학의 길에 들어서서 구약 주석 방법론 실습을 하려는 학생들이나, 전문적인 주석을 저술하는 학자들이나 매한가지다. 그런 뜻에서 본문비평은 주석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다. 또한 본문비평은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어느 방법 하나 허투루 배우고 다룰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구약성경의 주된 언어인 히브리어와 아랍어, 더 나아가서 다양한 고대 역본들의 언어들, 가령 그리스어나 라틴어 등도 대충 넘어갈 수 없다. 게다가 본문의 역사는 물론, 본

---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Dr. Theol.)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ihoze@hotmail.com.

1) “Die Textkritik ist das Tor zur Exegese, eine Hintertür gibt es nicht”, 참조.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187, 243. 이 책은 2014년에 일부 내용의 개정과 더불어 영어로 번역되었다: Alexander A. Fischer,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Erroll F. Rhodes, trans. (Grand Rapids: Eerdmans, 2014). 영어 역본에서 독일어 원서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최근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본 서평은 원래 독일어 저자의 저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독일어 원서를 대본으로 했음을 밝힌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어 역본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쪽수를 적어 두었다.

문 형태, 본문 변화 현상의 특성, 필사본의 종류와 그 특징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본문비평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본문비평을 위해서는 선입견이나 감성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도 길러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익혀나가야 해서 본문비평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뒷문”도 없다. 하지만 본문비평에 한 번 맛들인 사람은 절대로 이를 저버리지 않는다. 본문비평은 단순히 주석의 사전작업에 그치지 않으며, 누구나 대문을 들어설 때 어느 집인지 그 문패를 보듯, 주석의 첫머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요한 본문비평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대로 저술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독일어권에서는 1952년에 처음 출간된 이래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사랑받아온 에른스트 뷔르트바인(Ernst Würthwein)의 책<sup>2)</sup>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 피셔는 뷔르트바인의 이 책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에 새로운 교과서를 저술하기보다 이 권위 있는 교과서의 기본적 구성과 통찰은 유지하면서 개정하기를 선택했다. 그런데 피셔가 서론에서 밝히듯, 세 가지 이유에서 단순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새롭게 기술해야 했다.<sup>3)</sup> 첫째, 뷔르트바인이 1988년에 다섯째 개정본을 내고, 1996년에 87세의 일기로 죽은 뒤인 2002년에 이르러서야 쿵란 본문 편집이 공식적으로 완료가 되었다.<sup>4)</sup> 그렇기 때문에 본문비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쿵란 본문을 총괄해서 재정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둘째, 키텔(Rudolf Kittel)이 주후 1008년에 필사된 레닌그라드 사본(Codex Leningradensis)을 바탕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고문서본(diplomatische Edition)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BH[K]) 3판을 펴낸 이래,<sup>5)</sup> 1977년에 나온 네 번째 개정본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sup>6)</sup>에 이어, 다섯 번째 개정본이 출간되고 있다

2) Ernst Würthw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52; 5. Aufl., 1988).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출간된 4판이 번역된 바 있다. 에른스트 뷔르트바인, 『성서 본문비평 입문』, 방석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3)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V.

4) 쿵란 본문의 편집본인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DJD) 시리즈의 마지막 권으로 전반적인 개관과 색인이 출간되었다. Emanuel Tov, ed., *The Texts from the Judean Desert. Indic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Series* (Oxford: Clarendon Press, 2002).

5) 키텔은 세 번에 걸쳐서 히브리어 성경을 펴냈다. 그런데 1판과 2판은 레닌그라드 사본이 아니라 랍비 성경(Rabbinic Bible; RB<sup>2+</sup>; “textus receptus”)을 사용했다(1판: Leipzig: Hinrichs, 1906; 2판: Leipzig: Hinrichs, 1909-1913). 칼레(Paul Kahle)와 더불어 펴낸 3판에 가서야 레닌그라드 사본을 편집본의 주본문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R. Kittel and P. Kahle,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9-1937).

6) K. Elliger and W. Rudolph,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7-1977; 5. Aufl., 1997). 이 편집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말 번역 서문과 함께 출간되었

(Biblia Hebraica Quinta; BHQ).<sup>7)</sup> 뷔르트바인은 이 BHQ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편집본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해야 했다. 셋째, 본문비평에서 히브리어 본문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리스어 역본인 칠십인역(또는 칠십인경; Septuaginta; Septuagint; LXX) 본문도 뷔르트바인 이후 계속 편집·출간되어서,<sup>8)</sup> 그 부분도 본문비평을 위한 자료로서 다루어야 했다.

물론 최신의 자료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서술했다고 해서 잘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셔의 본서는 새로운 자료들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서술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데서 벌써 뷔르트바인의 책이 누렸던 지위를 이어받을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

## 2. 전반적인 특징

뷔르트바인의 책으로 공부한 독자들이 본서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늘어난 분량이다. 분량 면에서 피셔의 책은 뷔르트바인의 책(261쪽)보다 훨씬 두꺼워졌다(379쪽; 영어 역본은 343쪽임). 피셔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뷔르트바인보다 자세히 서술했다. 특히 독일어권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석 방법론 수업(Proseminar)을 염두에 둔 탓인지 개별 주제들의 보기를 더 많이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의 학문적 비평본이나 쿠펜 문헌 등과 같이 뷔르트바인의 책에

다: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7) A. Schenker, et al., eds., *Biblia Hebraica. Quinta editio cum apparatu critico novis curis elaborato*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4-): Fasc. 18. Five Megilloth (2004); Fasc. 20. Ezra and Nehemia (2006); Fasc. 5. Deuteronomy (2007); Fasc. 17. Proverbs (2009); Fasc. 13. Twelve Minor Prophets (2010); Fasc. 7. Judges (2012); Fasc. 1. Genesis (2016).

8) 먼저, 랄프스(한하르트 개정)의 비평편집본(A. Rahlfs and R. Hanhart, *Septuaginta.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2006])와는 별도로 괴팅엔 칠십인역 연구소(Göttingener Septuaginta Unternehmen)에서는 본문 형태에 따른 필사본 분류와 자세한 본문비평 각주를 제공하는 대비평편집본(editio critica maior)이 출간되고 있다: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ö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1-). 자세한 출간 현황은 <http://adw-goe.de/forschung/abgeschlossene-forschungsprojekte-aus-dem-akademienprogramm/septuaginta-unternehmen/veroeffentlichungen/septuaginta-vetus-testamentum-graecum/>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칠십인역 연구의 쟁점이 된 본문 형태인 이른바 “안디옥 본문”(Der antiochenische Text)의 스페인 편집본도 중요하다: N. Fernández Marcos and J. R. Busto 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서는 찾아볼 수 없었거나 짧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서 추가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뷔르트바인 책의 기본적인 짜임새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곧 피셔는 뷔르트바인의 책의 짜임새를 최소한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피셔(2009)	뷔르트바인(1987)
A. 히브리어 성경 본문 (Der hebräische Text der Bibel)	A. 원어 전승(Die Überlieferung in der Ursprache)
B. 고대 역본들 (Die alten Übersetzungen)	B. 원어 역본들 (Die Übersetzungen aus der Ursprache)
	C. 그 밖의 역본들 (Die Übrigen Übersetzungen)
C. 본문비평(Textkritik)	D. 본문비평(Textkritik)
	E. 본문역사와 본문비평의 신학적 의미(Die Theologische Bedeutung der Textgeschichte und Textkritik)
	<부록>
D. 도판(Bildtafeln)	도판(Bildtafeln)
E. 부록(Anhang) 용어해설(Glossar), BHS 라틴어 약어 목록 BHQ 영어 약어 목록 참고문헌목록, 색인	참고문헌목록, 약어목록, 색인

뷔르트바인의 책과 견주었을 때, 또 다른 의견상의 큰 차이점은 난외에 표시되어 있던 BHS 약어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책의 용도에 대한 피셔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뷔르트바인의 책에서 이 약어들은 본문비평을 실습하거나 수행하는 이들이 필요에 따라 다시 찾아보기에 수월하다. 그러므로 이 책에 있는 개별 항목 해설은 본문비평의 실체를 위한 안내서(Handbuch)로서의 용도에 걸맞다. 반면에 피셔는 이런 용도보다는 주석 방법론 수업(Proseminar)의 교과서(Lehrbuch) 구실에 더 큰 비중을 둔 듯하다. 곧 수업 시간에 찬찬히 읽어서 개별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본문비평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이전 뷔르트바인의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피셔는 이런 정보들을 책의 맨 뒤에 부록으로 수록하고, 해당 부분의 쪽수를 기입해 두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뷔르트바인의 교과서에 익숙했던 독자로서는 여전히 난외 약어 표시의 차별성이 없어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본문비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으로는 일찍이 1989년에 히브리어로 출간된 이후에 1992년(Second Edition)과 2001년(Second Revised Edition)의 개정에 이어 2012년에 3판으로 전면 개정하여 출간된 엠마누엘 토브(Emanuel Tov)의 책을 들 수 있다.<sup>9)</sup> 피셔와 토브의 두 책 모두 본문비평을 위한 자료들을 두루 담고 있으며, 본문비평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피셔의 책은 주석방법론을 공부하는 신학생과 좀 더 포괄적인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다면, 토브의 책은 본문비평의 전문가들과 개별 자료들에 대해 깊은 수준의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sup>10)</sup>고 말할 수 있다.

### 3. 뷔르트바인의 책과 견주어 내용 훑어보기

#### 3.1. 히브리어 성경 본문

본문비평 논의를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은 자명하다. 뷔르트바인과 피셔 둘 다 여기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뷔르트바인이 문자(Schrift)와 기록 도구(Schreibmaterial), 두루마리와 코텍스(Rolle und Kodex), 그리고 필기구와 잉크(Schreibgerät und Tinte)만 다루는 데 비해, 피셔는 맨 앞에 구약성경 히브리어(Das Biblische Hebräisch)의 특징을 추가하였다.<sup>11)</sup> 여기서 피셔는 서법과 모음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히브리어의 산문과 운문의 간략한 특징, 운율체계 등을 언급한다. 신학교의 주석 방법론 수업 현장을 고려할 때, 아직 히브리어의 전반적인 특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는 서술의 차이가 있지만, 피셔는 뷔르트바인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다. 그런데 피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록 도구와 코텍스 항목에서 종이의 전통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 점은 의아하다. 반면에 뷔르트바인은

9)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피셔는 칠십인역의 본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보기로 토브의 이 책의 출간과 개정 이야기를 든다. 참조.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24.

10)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V-VI. 이 두 책의 주된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는 참조. Siegfried Kreuzer, *Geschichte, Sprache und Tex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und seiner Umwelt*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2015), 337-352.

11)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7-9.

중국에서 전래된 기록 도구로서 종이와 종이 코텍스를 짧지만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sup>12)</sup>

마소라 본문의 전통의 편집본을 설명하는 데서 피셔는 먼저 용어 정의를 추가해서 시작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곧 이른바 “절충본”(eklektisch) 전통과 “고문서본”(diplomatish) 전통이다.<sup>13)</sup> 전자는 본문 편집자가 여러 필사본들을 대조하고 본문비평을 하여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판단하는 본문 형태를 선택하여 편집 본문으로 삼고, 나머지 이형들을 각주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가장 신뢰할 만한 필사본을 본문으로 선택한 뒤 나머지 이형들을 각주 처리하여 독자들에게 본문비평을 일임하는 전통이다. 절충본문을 제공하는 비평편집본 전통은 주로 독일 전통의 칠십인역 본문 편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 피셔가 새로이 편입하여 설명한 “옥스포드 히브리어 성경 프로젝트”(Oxford Hebrew Bible Project; OHB)<sup>14)</sup>가 처음으로 시도한다. 반면에 고문서본의 전통은 레닌그라드 사본을 주본문으로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K; BHS; BHQ)는 물론, 알렘포 사본(Codex Aleppo)을 주본문으로 하는 “히브리 대학 성경”(Hebrew University Bible; HUB)<sup>15)</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칠십인역에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전통에서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을 주본문으로 편집한 바 있다.<sup>16)</sup> 어쨌거나 피셔는 이 두 용어의 설명을 시작으로 현대의 히브리어 성경 편집본을 잘 설명해 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새롭게 나온 BHQ를 학생들을 위해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은<sup>17)</sup> 이 책의 고유한 가치로 여길 수 있겠다. 다만 2009년 이후의 출간상황을 알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sup>18)</sup> 이와 더불어 피셔는 독일에서 나온 SESB(Stuttgarter Elektronische

12) Ernst Würthw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0, 11; 좀 더 자세한 필사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서울: 바오로딸, 2009), 211-235를 참조할 수 있다.

13)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59-60.

14) Ibid., 65-66.

15) Ibid., 64-65.

16) H. B. Swete, ed.,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7-1894); A. Brooke and N. McLea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1940).

17)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61-62. 참고로 현대의 성경 편집본들에 대해 우리말로 저술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93-212; 박동현, “「히브리대학교 성서 예레미야서」 본문비평장치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3 (1998), 181-247; 민영진, “「BHQ」의 서문, 부호와 약사, 용어 정의와 해설 번역”, 『성경원문연구』 4 (1999), 121-161 등.

18) 참조. 위의 각주 7; 영어역본(49쪽)에서는 2012년까지의 출간현황을 제공한다. 독일성서공회에서 출간되는 BHQ의 상황을 제 때 알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https://www.bibelonline.de/de/alle-produkte/wissenschaftliche-bibel>

Studienbibel, Stuttgart Electronic Study Bible, 슈투트가르트 전자 연구 성경)나 영미권의 Bibleworks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언급하는데, 참고로 최근에 나온 Bibleworks 10의 “슈투트가르트 원어 모듈(구약)”(Stuttgart Original Language Module[Old Testament]; SOLO)은 BHS는 물론 BHQ까지 비평장치 및 본문 해설까지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준다.<sup>19)</sup>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한 대로 피셔는 뷔르트바인이 몇몇 주요 필사본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비교적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sup>20)</sup> 쿵란 본문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자세히 논의한다. 피셔는 여기서 와디 쿵란 유적지와 그 근처의 동굴들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발견된 필사본들의 연관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서 시작한다.<sup>21)</sup> 가장 대표적인 두 입장은 쿵란 유적지와 필사본, 그리고 요세푸스의 언급을 연계하여 이곳이 에세네파의 유적지였고, 필사본 또한 이들이 필사하여 보관했다고 보는 전통적 견해다. 피셔는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유물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쿵란 유적지는 농경생활을 했던 이들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소개한다. 피셔는 여전히 이 논쟁의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주지시키며, 유적지에서 발굴된 잉크와 필사본의 연관성을 들어 어떤 형태로든 쿵란 유적지에 살던 이들이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던 동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한다.<sup>22)</sup> 피셔는 이어서 필사본들의 여러 특징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 뒤에 쿵란 필사본들의 본문 역사를 개관하고, 특히 필사본들을 본문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는 이후에 나오는 사마리아 오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상당 부분 토브의 책 내용을 참조하였다.<sup>23)</sup> 피셔는 모든 본문증거들에 대한 설명을 학술적 본문 편집본 언급으로 마무리하는데, 쿵란의 경우 피셔가 이 책을 출간한 뒤 울리히가 2010년에 펴낸 “쿵란 성경 두루마리”(The Biblical Qumran Scrolls; BQS)<sup>24)</sup>를 추가해서 언급해 두어야 하겠다. 울리히는 이 책에서, 쿵란에서 발견되어 출간된 모든 성경 본문을 편집하고, 해당 단편마다 중요한 이형들을 비평주로 편집하였다. 쿵란 본문과 관련하여 본문비평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성경 소프트웨어인 “어코던스”(Accordance)도 별도 모듈로 쿵란 본문을 성경 순서와 필사본 순서

ausgaben/urtexte-altes-testament/.

19) 이에 대해 <http://store.bibleworks.com/product135.html>을 참조해 보라.

20) Ernst Würthw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38-41.

21)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69-74.

22) Ibid., 73.

23)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96-111;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07-111(쿵란); 79-93(사마리아 오경).

24) Eugene Ulrich,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VT.S 134 (Leiden; Boston: Brill, 2010).

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sup>25)</sup>

### 3.2. 고대 역본들

앞선 도표에서 견주어 보았듯, 구약성경의 역본들을 설명하면서, 뷔르트바인 자신이 구약성경의 원어에서 번역한 것으로 여겼던 그리스어 칠십인역, 아랍어 타르굼, 시리아어 페시타와 2차 역본(Tochterübersetzung)일 수도 있었다고 여겼을 고대 라틴어 역본(Vetus Latina),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Vulgata)와 같은 라틴어 역본과 콥트어, 에티오피아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등 그 밖의 역본들을 구분했다. 반면에 피셔는 이 모든 역본들을 한데 묶어 다루었다. 불가타는 분명히 히에로니무스가 아우구스티누스와 격렬한 논쟁을 거치면서까지<sup>26)</sup>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려고 애썼던 역본인데도, 뷔르트바인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 이 “그 밖의 역본들”로 분류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불가타 이전에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이차 역본인 고대 라틴어 역본과 한데 묶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둘째, 히에로니무스의 초기 역본들이 칠십인역이나 헉사플라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피셔는 이런 애매한 부분을 “고대 역본들”로 새롭게 분류하여 해결했다.

먼저 헬레니즘 시대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역본인 칠십인역에 대해 피셔는 두 가지 중요성을 역설한다. 첫째, 정경화 과정에서의 중요성이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구약성경 삼분법 구분(오경, 예언서, 성문서)이 오늘날의 사분법 구분(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으로 바뀌는 과정에 칠십인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문 역사에서의 중요성이다. 이는 쿨란의 성경 단편들을 제외하면 칠십인역이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본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셔는 칠십인역의 주제로 먼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sup>27)</sup>와 관련한 그리스어 번역본의 기원 논의를 소개한다. 한 마디로 편지가 소개하는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원 아래 이른바 원 칠십인역(Ur-LXX; Old Greek)에서 출발했을지(P. A. de Lagarde),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개별 회당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타르굼처럼 개별적이고 자생적으로 생겨났을지(P. Kahle)의 문제다. 피셔는 이 두 입장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sup>28)</sup> 개별적 생성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문화정책에 따른 공식인

25) 참조, [http://www.accordancebible.com/buzz/articles/dss\\_index.php](http://www.accordancebible.com/buzz/articles/dss_index.php). 본서의 영어역본(53쪽)에서는 어코던스를 소개한다.

26) 번역을 둘러싼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는,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71-172를 보라.

27) 이 편지 본문의 발췌 번역과 논의에 대해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28-40을 참조할 수 있다.

28)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46-151.

가라는 중도적 입장도 있음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sup>29)</sup>

이어서 피서는 칠십인역 본문의 초기 역사를 서술하는데, 쿵란에서 발견된 칠십인역 필사본에서부터, 초기 유대주의 개정본인 카이게 개정본,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온의 개정본을 거쳐, 기독교의 방대한 본문비평업적인 오리게네스의 헥사플라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 볼 것은 뷔르트바인이 짧게 “루키안 개정본”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간<sup>30)</sup> 본문 형태를 최근 연구 동향에 따라 “안디옥 본문”으로 일컬으며 연구사와 편집본 등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다는 점이다.<sup>31)</sup> 히에로니무스의 언급에 따라,<sup>32)</sup>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안디옥의 순교자 루키안이 개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 본문 형태가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더 나아가서 쿵란 본문 등의 지지를 받으면서 루키안 이전, “안디옥”의 고대 본문임을 밝히게 되었다.<sup>33)</sup> 그래서 이 본문을 “안디옥” 본문이라 일컬으며, 주전 1세기 무렵의 유대주의 개정본인 “카이게 개정본”과 더불어 중요한 본문 형태로 간주한다. 본문의 역사와 함께 피서는 뷔르트바인 사후에 진행된 칠십인역의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역본도 언급한다.<sup>34)</sup>

나머지의 역본들(콥터어, 에티오피아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은 짧게 언급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본문 중심의 본문비평에서 이런 역본들의 본문비평적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 경향을 내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라틴어 역본(Vetus Latina)에서 보듯, 2차 역본도 본문의 역사 재구성에 때때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 3.3. 본문비평

29) 이 입장에 대해서는, Siegfried Kreuzer, *The Bible in Greek. Translation, Transmission, and Theology of the Septuagint*,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63 (Atlanta: SBL Press, 2015), 47-63을 보라.

30) Ernst Würthw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69-70.

31)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38-141.

32) Hieronymus, *De viris illustribus*, § 77: “tantum in scripturarum studio laboravit, ut usque nunc quaedam exemplaria scripturarum Luciana noncupentur.”

33) 안디옥 본문의 비평편집본은 위의 각주 8을 참조하라.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연구사는, Jong-Hoon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4-32; 또한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165-188을 보라.

34) 독일어: Septuaginta Deutsch (2009); 프랑스어: La Bible d’Alexandrie (1986-); 영어: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2007);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53-154. 이들 역본에 대한 우리말 논의는, 김선중 외,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창세기 1,1-2,3의 예로 (1)”,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을 참조하라.

여태껏 살펴 온 본문 증거들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본문비평의 실재로 이어진다. 뷔르트바인은 이 항목을 채 스무 쪽이 되지 않게 다루었는데,<sup>35)</sup> 피셔는 본문비평의 실재에 60쪽 가까이 할애한다.<sup>36)</sup> 앞서 언급한 대로 뷔르트바인은 이 책을 본문비평을 위한 안내서로 여긴 데 비해, 피셔는 학생들의 실제 학습을 위한 교과서로 여겼음을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겠다.

피셔는 먼저 흥미로운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곧 “원 본문”(Urtext)과 “최종본문”(Endtext)의 정의다. 슈텍(O. H. Steck)의 견해에 따라, 피셔는 “원 본문”을 최초 기록(Urfassung)이 아니라 본문의 문헌적 성장과정(“das produktive Textwachstum(literary growth)”[sic!]) 맨 끝에 있는 원래의 본문으로 정의한다.<sup>37)</sup> 한편, “최종본문”에 대한 이해는 정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본문 역사의 관점에서 최종 편집을 거친 상태의 개별 책의 형태라고 말한다. 피셔 스스로도 자문하듯, 이렇게 볼 때, “원 본문”과 “최종 본문”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 문제를 관점으로 풀어간다. 곧 본문 형성(Kompositionsphase)의 관점에서 “최종 본문”은 본문 전송(Transmissionsphase)의 관점에서는 “원 본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피셔도 자인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본문에서 본문의 최종 편집 지점을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는 없다.<sup>38)</sup> 하지만 영미권에서 주장하는 최종 형태의 본문 개념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관점이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 피셔는 토브의 논의에서 영감을 받은 듯,<sup>39)</sup> 본문비평과 문헌비평(Literarkritik) 사이의 구분 문제를 다룬다. 문헌비평은 본문의 통일성 문제를 다루는데, 문헌비평과 연계되는 편집비평에서 말하는 편집자의 개념을 필사자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본문비평과 뚜렷한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하여 최근 학자들의 주목을 끄는 주제다. 피셔는 여기서 본문의 성장과정 이전과 이후의 구분, 의도성과 비의도성의 구분, 본문 증거 유무의 구분 등 여러 입장을 소개한 뒤, 종합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첫째, 본문의 성장과정 종료 이후에 생긴 것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본문비평의 영역이다. 둘째, 본문 성장과정에서 생긴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본문비평의 영역이다. 곧 본문비평의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는 본문의 문제와 필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가 아닌 본문은 문헌비평의 영역이라는 것이다.<sup>40)</sup>

35) Ernst Würthw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16-134.

36)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87-245.

37) Ibid., 189;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14.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37-38.

38) 참조.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93의 그림.

39)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83-326.

40)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96.

이와 관련하여 피셔는 본문비평의 정의를 다룬다. 본문비평의 정의와 관련하여 피셔는 본문비평이 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몇몇 입장을 먼저 소개한다.<sup>41)</sup> 슈텍(Steck)의 경우에는 “구약성경의 원 본문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피셔에 따르면 “원 본문”의 시기 확정이 쉽지 않은 약점이 있다. 본네베르거(Reinhard Wonneberger)는 “필사과정에서 생긴 의도적·비의도적 변화를 찾아내서 이해하고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피셔는 이런 방법은 유일한 본문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크로이처(Siegfried Kreuzer)는 “본문 전승을 검증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본문을 찾아내고, 나머지 이형들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피셔는 도달 가능한 본문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피셔는 뷔르트바인의 견해를 소개하는데, “전승된 본문의 모든 오류와 이형들을 검토하여 이어지는 주석 과정을 위해 신뢰할 만한 본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다. 피셔는 여기서 “신뢰할 만한”(zuverlässig) 본문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본문비평은 절충 본문(ein eklektischer Text)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피셔는 본문비평을 “본문의 역사에서 생겨난 본문의 오류와 의도적 변경을 찾아 제거하고, 원 본문 이전에 존재했을 신뢰할 만하고 학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본문을 제공하는 것”<sup>42)</sup>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피셔의 이 정의는 자신의 “원 본문” 정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다분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이다. 왜냐하면 피셔도 인정했듯, 그가 주장하는 “원 본문”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본문비평은 우리에게 전승된 구약성경의 본문에서 이형이 존재할 경우,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본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본문비평의 정의와 관련하여 피셔는 토브의 영향인 듯,<sup>43)</sup> 판독(Konjekturen)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판독(判讀)은 본문증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본문비평가 개인의 본문비평 결과로 판단(判斷)한 본문 재구성을 말한다. 이는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제한된 본문증거를 가지고 본문비평을 해야 할 때 남용되기까지 했던 방식으로 BH[K]와 BHS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피셔는 판독이 본문비평의 시작이 아니라 그 끝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sup>44)</sup> 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에서 “판독비평”(Konjekturenkritik)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판독의 보기를 길게 든 것<sup>45)</sup>은

41) Ibid., 197-200.

42) Ibid., 201.

43)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27-340.

44)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204.

45) Ibid., 239-242.

자칫 무책임한 본문 수정의 오류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문비평의 실습을 위해 피셔는 모든 본문비평 교과서에서 다루는 두 가지 주제로 마무리한다. 첫째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이 훼손되거나 변경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다. 비의도적 본문 훼손이나 변경 가운데 피셔에게서 새로운 것을 들자면, 고대 히브리어의 자음 유사성에서 비롯한 경우다(כ/ק; ׀/ס; ׀/ע).<sup>46)</sup>

마지막으로 본문비평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면서 피셔는 본문비평의 일반적인 원칙을 소개한다. 곧 본문증거들을 통한 외적기준과 본문비평의 일반원리에 따른 내적기준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피셔는 뷔르트바인이나 토브의 책보다 훨씬 교육적 실제성을 높여 설명한다. 뷔르트바인이나 토브는 본문비평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상세히 서술하면서도<sup>47)</sup>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피셔는 학생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 차근차근 본문비평 방법과 그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두 가지 점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피셔는 본문비평을 준비(Vorbereitung; deskriptiv), 실행(Durchführung; analytisch), 결정(Entscheidung; kritisch)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이를 도식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준 것<sup>48)</sup>은 학생들의 수월한 학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개별 단계마다 구체적인 지침과 참고 자료까지 제시해 주는 친절함을 보인다. 둘째, 피셔는 전문적인 주석서에서는 본문비평이 교과서처럼 서술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필사오류의 경우(삼하 6:3-4), 의도적 수정의 경우(신 27:4), 관독(Konjektur)이 필요한 경우(전 3:11)의 본문비평 과정의 보기를 상세하게 서술한다.<sup>49)</sup> 비록 첫째 보기는 다소 복잡하여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지 않으며,<sup>50)</sup> 위에서 언급했듯 관독의 보기는 본문비평의 다른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이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는 좋은 견본이 된다.

46) 고대 히브리어 자모음은 부록으로 첨부된 도판 48에서 볼 수 있다. 참조.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28. 피셔가 제시하는 다음의 고대 히브리어 개론서도 참조할 만하다: J. Renz and W. Röllig,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II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이 책에는 고대 히브리어 명문들의 인쇄본과 자음 형태 발전 목록, 명문들의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 시리즈의 1권은 개별 명문들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으며, 2권은 고대 히브리어 개별 자음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47)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67-282; Ernst Würthw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24-132를 보라.

48)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232.

49) *Ibid.*, 233-242.

50) 필사오류에서 비롯한 이형에 대한 본문비평의 좋은 보기로는 크로이처의 것이 교육적 효과는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조.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성경 주석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84-86.

### 3.4. 본문증거의 도판과 해설

본문비평 교과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문증거(Textzeugen; textual witnesses)의 도판과 해설이다. 피셔는 뷔르트바인이 제공한 48개의 도판을 해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뷔르트바인의 목록에서 두 개의 도판 그림을 교체했다. 먼저 첫째 도판에서 뷔르트바인은 1935년에 라기스에서 발견된 주전 14세기로 추정되는 원판형 본문 단편을 실었는데, 피셔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역사문헌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 석비(Tel Dan-Inschrift)로 교체했다. 아람어로 기록된 이 석비는 주전 825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다윗 왕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유명하다.<sup>51)</sup> 뷔르트바인이 죽던 해인 1996년에 두 단편의 발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뷔르트바인은 미처 도판 목록에 포함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로 피셔가 수정한 도판은 15번이다. 여기서 뷔르트바인은 쿰란 필사본의 보기로 신명기 단편과 열리지 않은 채 두루마리 상태로 뭉쳐져 있는 단편을 실었다. 뷔르트바인이 삽입한 이 도판은 쿰란 본문이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다. 피셔는 그 보다는 필사본의 본문 전송에 관심을 더 두고, 후대 필사가의 수정 현상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전도서 단편(4QQoh<sup>a</sup>=4Q109)으로 교체했다.<sup>52)</sup> 그밖에 피셔는 뷔르트바인이 선택한 도판들의 사진을 더 좋은 화질로 교체하는 정도의 수정만 했다.<sup>53)</sup>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새롭게 출간된 히브리어 본문 편집본인 BHQ를 비롯한 여러 학술적 편집본들도 도판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피셔가 기왕에 이들을 자세히 설명하려 했다면, 이 편집본의 보기를 본문 안에 두기보다는,<sup>54)</sup> 토브가 한 것처럼 도판 목록 말미에 여러 편집본들을 비교해서 보여 주는 것이<sup>55)</sup> 학습자와 독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51) 단 석비의 발굴과 분석의 기록으로는, A. Biran and J. Naveh, "An Aramaic Stele Fragment from Tel Dan", *IEJ* 32 (1993), 81-98; "The Tel Dan Inscription: A New Fragment", *IEJ* 45 (1995), 1-18; T. Muraoka, "Linguistic Notes on the Aramaic Inscription from Tel Dan", *IEJ* 45 (1995), 20-21; G. A. Rendsburg, "On the Writing בִּית דָּן in the Aramaic Inscription from Tel Dan", *IEJ* 45 (1995), 22-25를 참조하라.

52) Alexander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VI.

53) 가령, 6번 Papyrus Nash; 7번 쿰란 제1동굴 사진; 9번 쿰란 단편; 16번 무라바앗 열두 소예언서 두루마리; 24번 레닌그라드 사본; 30번 나할 헤베르에서 발견된 열두 소예언서 그리스어 단편; 40번 콘스탄츠 고대 라틴어 예언서 단편 등이다.

54) *Ibid.*, 63.

55) 참조.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99-404, 410-413.

#### 4. 나오는 말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에 출간된 책을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서술했다고 해서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피셔의 본서도 이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어떤 책이든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읽는 독자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셔는 안내서(*Handbuch*)로서 뷔르트바인의 책이 가졌던 특성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Lehrbuch*)로서의 역할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은 훨씬 상세해졌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뷔르트바인의 책에서 볼 수 있었던 간결한 문장과 유용한 자료가 줄어들어 아쉽다. 더구나 피셔는 많은 부분을 토브의 책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뷔르트바인의 책과 토브의 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서로 보완하였다면, 피셔의 책은 이 둘을 합쳐 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의 자료나 연구 동향을 빠짐없이 다 수록한 피셔의 세심함은 이 책의 가치를 높여 준다. 그러므로 뷔르트바인의 간결하고 명확한 서술들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본문비평의 최근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이에게 본서는 토브의 책과 더불어 필수 도서라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책이 최근에 들어서 영어로 옮겨진 것<sup>56)</sup>에 발맞추어 우리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학교와 성서학의 현실에 맞게 우리말로 저술된 본문비평 교과서가 나오기를 소망해 본다.

#### <주제어>(Keywords)

본문비평, 개정본, 에른스트 뷔르트바인, 알렉산더 피셔, 엠마누엘 토브.

Textual Criticism, revision, Ernst Würthwein, Alexander A. Fischer, Emanuel Tov.

(투고 일자: 2016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

56) 위의 각주 1을 보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선중 외,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창세기 1,1-2,3의 예로 (1)”, 『성경 원문연구』 21 (2007), 53-68.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서울: 바오로딸, 2009.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민영진, “「BHQ」의 서문, 부호와 약사, 용어 정의와 해설 번역”, 『성경원문연구』 4 (1999), 121-161.
- 박동현, “「히브리대학교 성서 예레미야서」 본문비평장치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3 (1998), 181-247.
- 에른스트 뷔르트바인, 『성서 본문비평 입문』, 방석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성경 주석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Biran, A. and Naveh, J., “An Aramaic Stele Fragment from Tel Dan”, *IEJ* 32 (1993), 81-98.
- Biran, A. and Naveh, J., “The Tel Dan Inscription: A New Fragment”, *IEJ* 45 (1995), 1-18.
- Fischer, Alexander A.,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Erroll F. Rhodes, trans., Grand Rapids: Eerdmans, 2014.
-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Kreuzer, Siegfried, *Geschichte, Sprache und Tex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und seiner Umwelt*,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2015.
- Kreuzer, Siegfried, *The Bible in Greek. Translation, Transmission, and Theology of the Septuagint*,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63, Atlanta: SBL Press, 2015.
- Renz, J. and Röllig, W.,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I-II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 Tov, Emanuel, ed., *The Texts from the Judean Desert. Indic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Series*, Oxford: Clarendon Press, 2002.
- Tov, E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Würthwein, Ernst,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52; 5. Aufl., 1988.

<서평>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 김정훈 463

Ulrich, Eugene,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VT.S 134, Leiden; Boston: Brill, 2010.

<https://www.bibelonline.de/de/alle-produkte/wissenschaftliche-bibelausgaben/urtexte-altes-testament/>.

<http://store.bibleworks.com/product135.html>.

[http://www.accordancebible.com/buzz/articles/dss\\_index.php](http://www.accordancebible.com/buzz/articles/dss_index.php).

<Abstract>

**Book Review –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Alexander Achilles Fischer, Stuttgart: Deutache Bibelgesellschaft, 2009)**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resent review deals with “*Der Text des Alten Testament*”, revised and expanded by Alexander A. Fischer from the monumental work of Ernst Würthwein. Fischer’s book is labeled as a expanded revision of Würthwein’s book, but it has actually been overall rewritten. According to the author, Würthwein’s book is assumed to be rewritten because of three factors, which the original author Würthwein could not experience. These are (1) the completed publication of the DJD series in 2002; (2) the newly published Biblia Hebraica (BHQ) fifth edition; and (3) the recently published volumes of the *Göttinger Septuagint* editions, or the so-called Antiochene Text. Fischer targets theological seminary students as main readers. For that reason, Fischer explains each article systematically and in greater detail than Würthwein. But for the same reason, he occasionally loses conciseness and clearness, which have been the main advantage of Würthwein’s work. Futhermore, Fischer, in some cases, seems to be in awe of Emanuel Tov’s book. Nonetheless, the book is not to be devalued because it covers almost every detail of recent data. This book is thus recommended as an essential reading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extual criticism.